

배포일시	2010. 12. 24.(금) 11:00 (총10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대구기상대	담당자	대장 이동한
		전화번호	053-952-0366

대구·경북 1월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 동해안지방 중심으로 대설
- 겨울 가뭄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주의
- 강풍·풍랑, 한파로 인한 건강관리, 농작물 피해 주의

□ 1월의 기상 특성

- 1월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한파가 찾아오기도 함.
-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옴.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풍과 풍랑이 발생하고, 동해상으로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너울이 발생하기도 함.

□ 1월의 대표적 기상 재해

○ 대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이 내리는데, 1월 평균 눈 일수는 봉화가 6.5일로 가장 많고, 상주 5.9일, 안동 5.7일, 문경 5.6일로 소백산맥 인근 지역, 경북북부,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 등 교통 장애, 시설물 피해 등을 유발함. 2005년 1월 16일에 울진에 신적설 20.4cm를 비롯하여 경북동해안에 10~20cm의 눈이 내려 시설물 피해, 교통 두절, 빙판길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있었음.

○ 한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므로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2010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경북 봉화의 최저기온이 6일 -24.7℃, 7일 -24.2℃, 8일 -22.9℃로 1월 최저기온 최저 순위 1~3위를 기록하였음.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수도관 동파, 농작물 피해,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고,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대 순간 전력 수요치를 경신하였음.

○ 강풍, 풍랑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동해상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는 풍랑이 발생함. 2003년 1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일 최대순간 풍속이 영덕 24.2㎧, 울진 23.2㎧, 대구 19.9㎧, 포항 17.1㎧ 등 강풍이 불어 비상경보장치 오작동을 일으키고 동해상에 풍랑이 일었음.

○ 가뭄, 건조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경상북도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겨울철 가뭄이 옴. 2007년 1월은 대구·경북 월 강수량이 4.8mm로 1973년 이래 네번째로 적어 겨울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였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였음.

※ 첨부 : 1월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3-952-0366, <http://www.kma.go.kr>



1월 기상특성과 재해 정보(대구경북)

- 대설, 강풍, 풍랑. 겨울 가뭄으로 인한 화재 주의, 한파로 인한 건강관리, 농작물 피해 주의 -

대구기상대
2010년 12월 24일 11시 발표

□ 1월의 기상 특성

- 1월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한파가 찾아오기도 함.
-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옵니다.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풍과 풍랑이 발생하고, 동해상으로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너울이 발생하기도 함.

□ 1월의 대표적 기상 재해

○ 대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이 내리는데, 1월 평균 눈 일수는 봉화가 6.5일로 가장 많고, 상주 5.9일, 안동 5.7일, 문경 5.6일로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 등 교통 장애, 시설물 피해 등을 유발함. 2005년 1월 16일에 울진에 신적설 20.4cm를 비롯하여 경북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0~20cm의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교통 두절, 빙판길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있었음.

표 1. 지점별 1월(평균) 눈 일수 (단위 : 일)

지 점	봉화	상주	안동	문경	영주	구미	의성	대구	영천	울진	포항	영덕
눈일수	6.5	5.9	5.7	5.6	5.1	5.0	4.7	4.2	3.6	3.0	2.4	2.2

○ 한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므로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2010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경북 봉화의 최저기온이 6일 -24.7℃, 7일 -24.2℃, 8일 -22.9℃로 1월 최저기온 최저 순위 1~3위를 기록하였음.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수도관 동파, 농작물 피해, 빙판길 낙상,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고,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대 순간 전력 수요치를 경신하였음.

○ 강풍, 풍랑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동해상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는 풍랑이 발생함. 2003년 1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일 최대순간 풍속이 영덕 24.2㎞, 울진 23.2㎞, 대구 19.9㎞, 포항 17.1㎞ 등 강풍이 불어 비상경보장치 오작동을 일으키고 동해상에 풍랑이 일어났음.

○ 가뭄, 건조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경상북도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겨울철 가뭄이 옴. 2007년 1월은 대구·경북 월 강수량이 4.8mm로 1973년 이래 네번째로 적어 겨울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였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표 2. 대구·경북 1월 강수량 최저 순위

최저 순위	1	2	3	4	5
강수량(mm)	0.4(1976년)	1.1(1984년)	2.4(1985년)	4.8(2007년)	5.3(1977년)

○ 황사

황사는 주로 봄철인 3~5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 중국과 몽골 사막지역이 건조하여 겨울철인 12~2월에도 황사가 발생하고 있음. 1월에 황사가 발생한 사례는 1999년에 4일, 2001년에 1일이 있음.

※ 붙임 : 1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붙임]

1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대구기상대

1. 1월 지역별 평년 기후값 및 극값

□ 기후 평년값 (1월)

평균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0.2	0.7	2.3	-1.1	1.9	-2.5	-1.3	1.4	-2.9	-0.6
중 순	-1.2	0.1	1.4	-2.0	0.6	-3.5	-2.3	0.2	-3.8	-1.5
하 순	-1.3	-0.2	1.1	-2.1	0.5	-3.5	-2.3	0.1	-4.0	-1.6
평 균	-0.9	0.2	1.6	-1.7	1.0	-3.2	-2.0	0.6	-3.6	-1.2

최저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4.9	-3.5	-1.6	-5.8	-2.3	-7.6	-5.8	-3.0	-8.9	-5.7
중 순	-6.1	-4.3	-2.6	-7.0	-3.6	-9.0	-7.0	-4.3	-10.3	-6.8
하 순	-6.3	-4.6	-2.9	-7.3	-3.9	-9.1	-7.2	-4.5	-10.5	-7.0
평 균	-5.8	-4.1	-2.4	-6.7	-3.3	-8.6	-6.7	-3.9	-9.9	-6.5

최고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5.3	5.8	7.2	4.4	6.9	3.1	3.6	6.6	4.5	5.3
중 순	4.4	5.1	6.3	3.6	5.8	2.2	2.8	5.4	3.8	4.5
하 순	4.4	4.9	6.1	3.8	5.6	2.2	3.0	5.4	3.9	4.6
평 균	4.7	5.3	6.5	3.9	6.1	2.5	3.1	5.8	4.1	4.8

강수량

단위 : mm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9.3	6.8	12.7	6.8	15.1	7.6	7.2	13.7	5.8	7.8
중 순	8.2	6.9	11.4	5.8	14.8	4.6	5.4	11.2	5.8	7.5
하 순	10.4	8.0	16.4	6.8	18.0	6.8	8.6	14.0	6.4	8.3
합 계	27.8	21.7	40.5	19.4	47.9	19.0	21.2	38.9	18.0	23.6

(평년기간 : 대구, 포항, 울진(1971~2000년), 구미,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1973~2000년))

□ 1월 일최저기온(°C) 최저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86.01.05	-13.7	2001.01.15	-13.3	2004.01.22	-12.7	2004.01.21	-12.7	2003.01.29	-12.7
안동	1974.01.25	-20.2	1974.01.26	-19.9	1974.01.28	-18.7	1990.01.26	-18.5	1974.01.24	-18.1
상주	2004.01.22	-14.2	2004.01.21	-14.0	2009.01.24	-13.5	2003.01.06	-13.0	2003.01.29	-12.9
포항	1945.01.06	-15.0	1970.01.05	-14.4	1967.01.16	-14.4	1953.01.15	-14.4	1953.01.14	-14.2
대구	1923.01.19	-20.2	1923.01.18	-19.6	1915.01.13	-18.6	1953.01.19	-17.6	1915.01.14	-17.0
봉화	2010.01.06	-24.7	2010.01.07	-24.2	2010.01.08	-22.9	1990.01.26	-22.3	2001.01.16	-21.4
영주	1981.01.17	-23.8	1974.01.25	-21.6	1985.01.17	-21.4	1981.01.27	-21.2	1974.01.26	-21.1
문경	1974.01.26	-20.0	1974.01.25	-18.7	1974.01.28	-18.2	1981.01.17	-18.0	2001.01.15	-17.4
영덕	2001.01.15	-14.2	1985.01.15	-13.5	2004.01.22	-13.3	2004.01.21	-13.0	1986.01.05	-13.0
의성	1981.01.17	-23.3	1974.01.25	-22.5	1990.01.26	-21.5	1974.01.26	-21.5	1981.01.27	-21.4
구미	1974.01.26	-24.0	1974.01.25	-22.7	1974.01.28	-21.4	1974.01.24	-21.0	1974.01.29	-19.9
영천	1981.01.17	-20.5	1993.01.21	-18.0	1974.01.26	-17.6	1981.01.27	-17.3	1974.01.25	-17.0

□ 1월 일강수량(m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92.01.06	52.7	1979.01.28	50.4	1973.01.07	49.9	1998.01.08	44.2	2002.01.26	43.0
안동	2002.01.15	61.0	1987.01.02	28.2	1989.01.07	26.6	1973.01.24	24.7	1973.01.07	23.0
상주	2002.01.15	33.0	2002.01.16	20.5	2008.01.11	18.0	2006.01.31	14.0	2006.01.13	12.0
포항	1953.01.18	60.9	1998.01.08	55.6	1992.01.31	36.7	1950.01.30	36.0	1954.01.14	33.5
대구	1923.01.15	33.5	1953.01.18	32.6	1950.01.30	32.2	1908.01.31	30.7	1989.01.18	28.4
봉화	2002.01.15	27.0	2008.01.11	20.5	1989.01.07	20.3	1989.01.19	18.3	2002.01.16	18.0
영주	1973.01.24	28.9	2008.01.11	25.5	2002.01.16	25.5	2001.01.07	25.5	1973.01.07	22.7
문경	2002.01.15	46.0	1974.01.21	34.4	2008.01.11	26.7	1987.01.02	26.4	1973.01.24	26.0
영덕	1992.01.06	49.6	2002.01.15	48.5	1987.01.02	42.6	1989.01.11	40.3	2002.01.26	38.5
의성	1987.01.02	27.4	1973.01.24	26.2	1989.01.07	25.7	2002.01.15	24.5	1989.01.19	24.2
구미	1987.01.02	30.9	2001.01.07	30.0	1973.01.24	27.6	1989.01.07	27.1	1998.01.08	26.2
영천	1987.01.02	26.5	1989.01.07	25.2	1973.01.24	25.1	1989.01.19	24.9	1974.01.21	24.8

□ 1월 최심신적설(c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74.01.29	21.4	2005.01.16	20.4	1990.01.30	15.3	1981.01.15	15.2	1986.01.21	14.3
안동	1974.01.21	19.3	1998.01.08	17.3	1990.01.31	12.0	1997.01.05	11.4	1990.01.30	10.4
상주	2003.01.22	12.4	2002.01.07	7.5	2010.01.04	6.5	2007.01.06	6.5	2002.01.26	3.6
포항	1981.01.15	17.4	2005.01.16	16.2	1978.01.29	14.7	1969.01.31	9.6	1993.01.13	9.4
대구	1953.01.18	51.0	1932.01.01	25.5	1965.01.29	21.5	1974.01.21	20.5	1969.01.31	15.5
봉화	1997.01.05	23.5	2005.01.16	17.0	1995.01.22	9.7	1996.01.15	8.7	2001.01.07	8.3
영주	1981.01.15	31.1	1974.01.21	21.9	1973.01.07	16.8	1981.01.01	16.5	2001.01.07	13.8
문경	1981.01.15	29.8	1974.01.21	29.8	2001.01.07	22.3	1990.01.31	20.6	1998.01.08	18.8
영덕	1981.01.15	23.1	1974.01.29	19.2	2005.01.16	11.8	2003.01.23	10.2	1978.01.29	7.5
의성	1974.01.21	21.9	1998.01.08	19.4	1981.01.15	17.4	1978.01.02	13.7	1997.01.05	10.5
구미	1974.01.21	27.3	2001.01.07	21.0	1998.01.08	21.0	1990.01.31	13.3	1981.01.15	10.7
영천	1981.01.15	14.8	1974.01.21	13.8	1998.01.08	13.6	1993.01.13	13.2	2005.01.16	12.5

□ 1월 최심적설(c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74.01.30	25.4	1990.01.31	25.3	1974.01.29	21.4	1978.01.29	20.7	2005.01.16	20.4
안동	1974.01.21	19.3	1990.01.31	18.5	1998.01.08	18.4	1974.01.22	15.9	1993.01.15	14.8
상주	2003.01.23	15.0	2003.01.22	12.4	2002.01.07	7.5	2002.01.08	7.3	2010.01.05	6.5
포항	1969.01.31	20.1	1981.01.15	17.4	2005.01.16	16.2	1978.01.29	14.7	2005.01.17	14.0
대구	1953.01.18	55.4	1953.01.19	38.2	1953.01.20	35.0	1953.01.21	27.0	1923.01.15	25.8
봉화	1997.01.05	23.5	1997.01.06	17.8	2005.01.16	17.0	1997.01.07	14.1	2005.01.17	13.0
영주	1981.01.15	31.1	1981.01.16	24.0	1974.01.21	21.9	1973.01.07	16.8	1981.01.01	16.5
문경	1990.01.31	36.0	1974.01.21	31.6	1981.01.15	29.8	1981.01.16	23.1	1974.01.22	22.5
영덕	1981.01.15	23.1	1974.01.30	21.2	1974.01.31	19.8	1974.01.29	19.2	1981.01.16	14.0
의성	1974.01.21	21.9	1998.01.08	19.4	1981.01.16	17.6	1981.01.15	17.4	1993.01.15	15.3
구미	1974.01.21	29.3	1974.01.22	22.1	1998.01.08	21.2	2001.01.07	21.0	1990.01.31	20.5
영천	1974.01.21	17.5	1993.01.14	17.0	2003.01.23	16.7	1993.01.15	16.0	1981.01.15	14.8

□ 1월 일최대풍속(m/s)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97.01.01	31.7	1997.01.02	29.7	1978.01.09	23.7	1976.01.05	21.0	1995.01.09	20.7
안동	1988.01.24	15.3	1988.01.23	15.3	1988.01.22	15.0	1988.01.27	13.7	1991.01.05	13.3
상주	2003.01.28	11.9	2002.01.08	11.5	2002.01.28	10.9	2005.01.04	10.8	2005.01.31	10.7
포항	1953.01.18	35.0	1951.01.10	22.7	1961.01.25	20.0	1963.01.29	19.0	1960.01.23	18.3
대구	1949.01.05	18.7	1946.01.15	18.5	1953.01.12	18.3	1916.01.09	18.0	1943.01.11	17.8
봉화	2001.01.12	11.4	2001.01.03	11.1	2001.01.02	11.0	1998.01.25	11.0	2001.01.04	10.3
영주	1998.01.19	21.7	1998.01.25	19.6	1998.01.18	18.5	1998.01.24	17.5	1985.01.16	17.5
문경	2000.01.06	12.6	2000.01.07	11.7	1994.01.19	11.0	1975.01.12	11.0	1983.01.08	10.5
영덕	2001.01.02	18.2	2002.01.08	17.4	2001.01.26	16.7	1975.01.01	16.5	1973.01.02	16.0
의성	1992.01.23	11.0	1992.01.17	10.5	1990.01.24	10.5	1980.01.30	10.5	1992.01.22	10.0
구미	1980.01.30	15.5	1975.01.12	14.0	1990.01.22	13.0	1982.01.19	13.0	1980.01.17	13.0
영천	1980.01.30	15.0	2001.01.14	12.7	1988.01.24	12.5	1988.01.23	12.5	1988.01.22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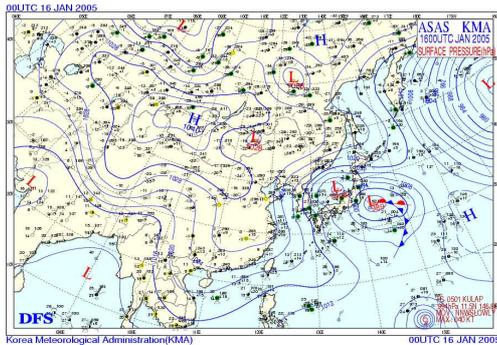
□ 1월 일최대순간풍속(m/s)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97.01.01	51.9	1997.01.02	49.8	2002.01.07	32.7	1995.01.09	31.6	1987.01.17	30.0
안동	1997.01.01	23.9	1997.01.02	23.7	1995.01.09	23.1	1997.01.28	22.0	1991.01.05	20.0
상주	2003.01.28	23.4	2002.01.08	22.3	2002.01.02	20.5	2004.01.22	20.4	2003.01.29	19.8
포항	1976.01.07	34.0	1965.01.11	29.4	1965.01.12	26.2	1989.01.11	25.7	1998.01.15	25.1
대구	1980.01.30	27.3	1979.01.18	26.0	1965.01.11	25.0	1981.01.13	24.0	1971.01.04	23.8
봉화	1998.01.25	20.5	1998.01.24	18.7	1998.01.18	18.6	1997.01.01	17.7	1998.01.23	17.5
영주	1998.01.19	35.2	1998.01.18	30.2	1998.01.24	28.7	1998.01.25	28.2	1998.01.04	27.0
문경	1996.01.03	21.6	2002.01.07	21.3	2002.01.08	20.2	2003.01.27	19.7	1996.01.08	19.7
영덕	1997.01.02	28.6	2002.01.08	28.5	2001.01.02	25.6	2003.01.28	24.2	2003.01.27	23.3
의성	1997.01.01	17.7	2003.01.29	17.2	1997.01.02	17.0	1996.01.03	16.5	1998.01.24	15.7
구미	2003.01.05	17.7	2003.01.28	17.2	1998.01.24	17.0	1996.01.08	16.4	2004.01.13	15.8
영천	2009.01.23	23.9	2003.01.28	18.2	2003.01.05	17.8	2002.01.07	17.5	2003.01.29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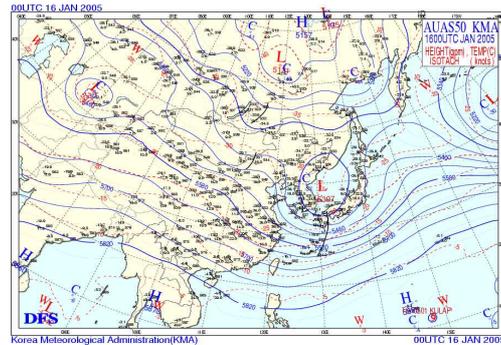
2. 기상재해 사례

□ 대설(2005.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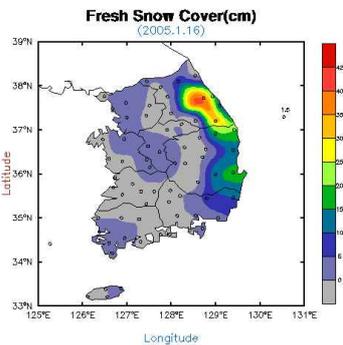
저기압이 동해상에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졌고, 500hPa에 -35°C의 강한 한기가 위치하였음. 16일 새벽부터 눈이 시작되어 낮동안에는 비와 진눈깨비가 같이 내렸음.



2005. 1. 16. 09:00 지상일기도



2005. 1. 16. 09:00 500hPa 일기도



신적설 분포도(2005. 1. 16)

지역	신적설(cm)
울진	20.4
포항	16.2
봉화	17.0
영덕	11.8
영천	12.5

지점별 신적설(2005. 1. 16)

○ 대설 피해 관련 기사

영남브리핑 | 교통마비 농가피해 잇따라

- 농산·농촌 등 동해안 24년만에 가장 큰 눈
- 일부 고산지역 기상청 해보수차 3배준
- 비닐하우스 파손, 양양 열차 등 운행 지연

M.BANNER.M ◇ 대설 지역별 현황

울진군 화피리 화피리리와 영양군 수비면 60km, 봉화군 석포 42km, 경주시 외동 28km 등 16일 울진, 영양, 포항,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24년만에 가장 큰 눈이 내렸다. 밤안개, 산, 절도, 구름, 물결, 상추, 상추 등 마구 안개 시군과 도내 내륙지역은 눈이 내리지 않거나 5cm 안팎의 적은 눈만 내렸다. 연초 폭설이 내렸던 울릉군에는 다량의 눈이 내리지 않았다.

60~90cm의 적설량을 보인 영양군 산간 오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눈이 내렸고 한 시간 뒤부터 이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전 6시부터 내린 눈은 오전 8시부터 한때 눈으로 변해 오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내려 수비면 60cm, 영양읍 50cm, 석포읍 27cm 등 평균 30cm의 적설량을 보였다.

특히 울진군은 동해안 해수 온도 상승으로 눈, 진눈깨비, 비가 한데 섞여 내렸으며, 울진군 기상대 적설 관측소가 있는 울진읍 언저리는 오전 7시9분 최고 적설량 20.4cm를 기록한 반면 화피리 화피리리와 동해안에 인접한 일부 고산 지역은 최고 90cm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진 기상대와 현지 적설 관측소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포항 지역은 이날 오전 4시부터 눈이 내려 오후 2시까지 폭설 22cm, 적기북쪽 20cm, 산간 18.5cm, 연일 7.5cm 등 평균 15.8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포항기상대는 "이번 눈은 포항 기상 관측상 1981년 17.4cm 이후 가장 많이 내렸다고 밝혔다."

경주 지역도 오전 4시~오후 1시 28cm(경주시 외동)~5cm(갈포) 등 평균 13cm의 적설량을 보였다. 이는 1981년 1월 16일 17.4cm 기록을 뛰어넘어 최고 기록이다.

◇ 피해 어느 정도

수십년만의 폭설로 경북 동해안지역의 주요 교통망(국도 7개, 지방도 7개 구간)이 마비되고 일부 산간 오지마을이 고립됐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닐하우스가 파괴되는 실례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포항공항 항공기, 포항~물류도단 정기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고 폭풍까지 일어 동해안 각 항구에는 2천여척의 선박이 어선도 포함을 포기하고 피항했다. 17일 오전 10시 현재 교통유체 구간은 4개이며 나머지 3개는 오후 5시 이후 소통 전망이다.

포항지역은 대설 집계가 재해 동향되지 못해 공무원들의 제설작업이 늦어지고 심지어 성역역적 소속 시내버스와 상암수개 및 및 남양리까지 소노해인 등 돌출정비를 갖추지 못해 운행 중단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휴일나들이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9시 동해선 화물열차 파랑주르보가 발동되면서 포항~물류도단 정기여객선, 포항~서울 항공기가 17일 오전까지 운항이 중단되고 있으며, 서울~포항간 새마을호 열차는 인천, 송죽들이 화물소통을 막아기도 했다. 특히 이번 기상 폭설로 포항철강공단 내 각 업체들도 원료 및 제품 운송에 큰 차질을 보는 등 한해 물류수송에 비상이 걸려 중단 직황들이 비상 출근해 제설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포스코는 16일 5천~6천의 재고를 출하할 예정이었지만 오전까지 불과 400~500밖에 출하하지 못했다.

60~90cm의 눈이 내린 울진군 서면 화피리, 소관리 일대 10여개 산간 오지마을 주민 3천여명도 한때 고립됐지만, 17일 물러날씨가 풀리면서 주민들이 나들이하러 나오기도 했다.

폭설로 인해 각종 농사시설물도 각종 피해를 입었다. 영양군 수비면 상추수급재배지역과 화평단지 등 비닐하우스 100여호도 파손됐고, 산간지역 하우스도 상당량 파손돼 온이 현저해서 피해조사중이다. 울진군 울진읍 문양리 해안에 설치된 온양수산 등 육상 양식장 100여개소도 지붕이 내려앉은 피해를 입었다.

2005. 1. 17. 영남일보

ideaU.com

기사 입력시간: 2005-01-17 21:14

폭설피해 집계

경북지역 폭설로 17일 오후까지 비닐하우스 555채(19.62ha)가 피해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동해안에 내린 큰 눈으로 6개 시 군에서 비닐하우스 555채가 무너져 내려 시금치, 상추, 버섯과 같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양 350채(9.9ha)를 비롯해 포항 136채(3.7ha), 영덕 30채(4.3ha), 청송 23채(1ha), 울진 15채(0.7ha), 봉화 1채(0.02ha)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과 주민 등이 합동조사를 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눈이 얼어붙어 교통이 통제됐던 국도 등 도로 8곳 중 영덕 청수면~영해면 구간 지방도 918번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가 제설작업이 완료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도로가 현재 정상 소통이 가능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 또다시 결빙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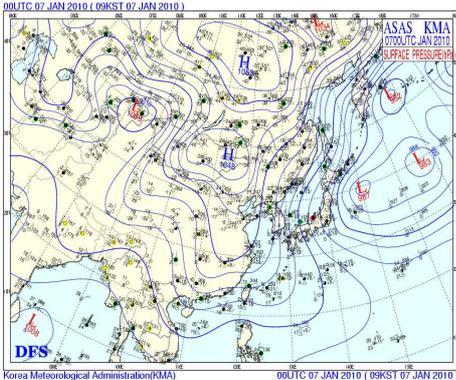
한편 이번 폭설은 영양 32cm를 내린 것을 비롯해 영덕 27.9cm, 울진 20.3cm, 청송 17.5cm, 포항 5.8cm, 경주 13cm 등이 내렸다.

이주형기자 leejh@daeg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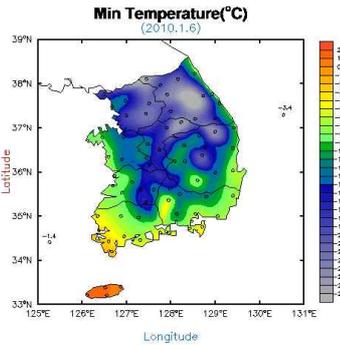
2005. 1. 18. 대구일보

□ 한파(2010. 1. 6~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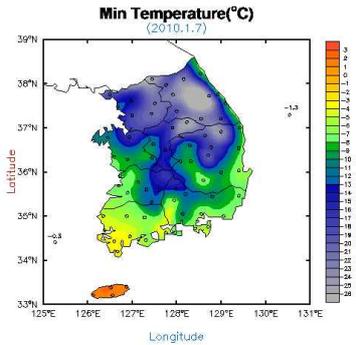
2010년 1월 6일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파가 나타났음. 경북 봉화의 최저기온이 6일 -24.7℃, 7일 -24.2℃, 8일 -22.9℃로 1월 최저기온 최저 순위 1~3위를 기록하였음.



2010.1.7. 09:00 지상일기도



일최저기온 분포(2010.1.6)



일최저기온 분포(2010.1.7)

○ 봉화 1월 최저기온 최저 순위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봉화	2010.01.06	-24.7	2010.01.07	-24.2	2010.01.08	-22.9	1990.01.26	-22.3	2001.01.16	-21.4

○ 지점별 최저기온(2010.1.6~1.8)

지점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지점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봉화	-24.7	-24.2	-22.9	구미	-11.7	-8.8	-12.4
영주	-13.4	-19.0	-19.2	영천	-12.7	-9.8	-13.3
문경	-11.4	-10.9	-15.2	울진	-9.6	-8.5	-6.3
상주	-10.8	-8.7	-10.0	영덕	-9.7	-8.8	-5.9
안동	-14.3	-17.7	-16.9	포항	-6.8	-6.7	-5.7
의성	-20.0	-19.5	-18.7	대구	-8.4	-7.5	-8.6

○ 한파 관련 기사

'춥장군 매서운 심술'...집집마다 '동파 아우성'

7일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한 양계장. 영주소방서 소방차가 비상급수를 위해 긴급 출동했다. 지난달 말부터 봉화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를 밑돌면서 수도권 동파 사 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투입된 농업용수는 모두 6천ℓ. 대형소방차 1대에 가득 실리는 양이다. 같은 날 영주시 단산면 흑대리의 한 돼지 농장도 수도권에 동파돼 소방차 신세를 졌다.

영주소방서가 지난달부터 7일까지 비상급수를 위해 출동한 것은 모두 8차례로, 5만800ℓ의 물을 공급했다. 가로 10m, 세로 5m, 깊이 1m의 수영장 물을 가득 채울 양과 맞먹는다.

대구경북 곳곳에서 수도관 동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봉화 최저기온이 영하 24.2℃까지 떨어져 울릉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는 등 기습 한파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경우 소방차 비상급수에 의존해야 할 처지다.

의성소방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6일까지 군위 의성 지역 120여 가구의 식수를 담당했다. 3만6천ℓ의 물을 공급했다. 모두 간이상수도가 열면서 생긴 일이다. 영하 6℃ 이하가 3일간 지속되면 동파가 잦다는 상수도사업소의 통계처럼 경북 지역은 지난 달 말부터 매일 20~30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소방본부에는 지난 달부터 7일까지 32차례나 출동해 비상급수에 나서야 했다.

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7일까지 12일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6.1℃로 떨어지면서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는 동파 신고 접수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22일 첫 신고 이후 31일까지 총 접수는 12건에 불과했으나 새해 들어 41건이 한꺼번에 발생했다. 특히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8.4℃, 7.5℃까지 떨어진 6, 7일 이틀에만 20건의 동파 사고가 속출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박철호 담당은 "동파 피해가 우려되는 복도식아파트, 대형건물 등의 옥내배관 및 수도계량기에 대한 동파 예방 보온 조치에 힘써달라"며 "보온 조치해야 할 수도 시설물은 마당의 수도꼭지(부동급수전), 수도계량기 보호통, 외부에 노출된 수도배관 등"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2010. 1. 8. 매일신문

"수도관은 터지고 무릎은 깨지고"

13일 연속 한파에 피해 속출...병원 차량비소 폭적

지난달 말부터 13일동안 연속해 지역의 평균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한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대구상수도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평균기온이 영하권에 떨어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는 41건에 달했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 지난 6일에는 하루에만 10건의 수도계량기가 터졌다. 수도관 동파사고가 속출하면서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면서도나 주택가 골목에는 지난 4일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 낙상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동산병원에는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이나 무릎 등을 다친 환자 10여명이 병원을 찾았다.

자동차 정비업소에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때 아닌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발판길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차량 고장으로 자동차 수리 의뢰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달서구 삼인동 H자동차정비소는 하루 평균 4~5대 차량 들어오던 걸질비 및 차고 차량이 4일 이후 최고 9대까지 들어오는 등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비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배터리가 오래된 차량의 경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서 "추운 날에는 수시로 자동차 시동을 걸어주는 것도 좋다" 말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채소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4일 이후 배추와 대파, 양파, 감자 등의 농작물 가격이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와 비교할 때 현재 배추 한 포기 100원, 대파 한 단 60원, 감자 1kg 70원, 양파 3kg 390원이 오른는 등 품목별로 20%에서 최고 44%까지 가격이 올랐다.

매서운 추위에 찰얼발 또는 시우나를 찾는 연인이나 가족들도 크게 늘었다. 달서구 신일동 한 찰얼발에는 지난달 하루 평균 500여명이던 고객 수가 이날 플면서 최고 300여명까지 증가했다.

또 난방비 수요가 늘면서 최대 순간 전력 수요자가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11시 시간당 평균 전력 수요가 7천908MW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7천813MW(4일 낮 12시)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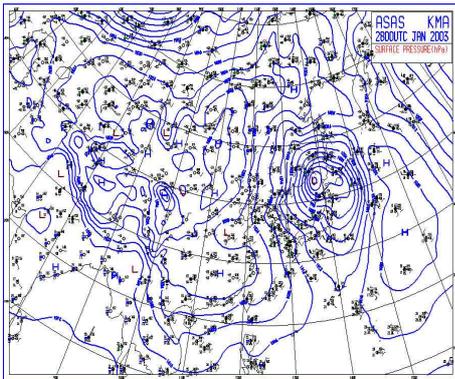
대구시상대는 "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한 후 이번 추위가 9일 낮부터 다소 누그러졌지만 12일부터 다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한파가 이어질것다"며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특히 발판길 교통안전과 안전보행"을 당부했다.

이지영기자 young@idaegu.co.kr 입력시간 : 2010-01-08 10: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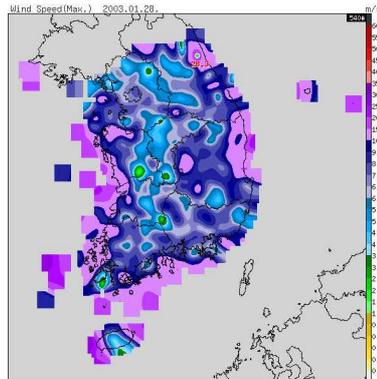
2010. 1. 8. 대구신문

□ 강풍, 풍랑(2003. 1. 27~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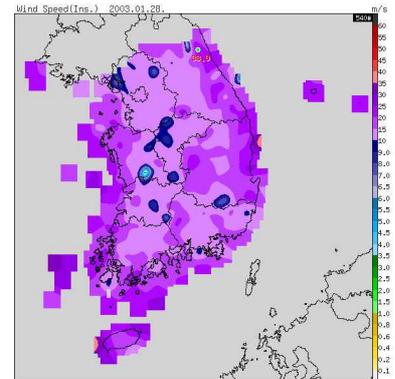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동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강풍이 불었음. 특히, 동해상에는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강풍과 함께 풍랑이 매우 높게 일었음.



지상일기도(2003.1.28.09시)



일 최대 풍속(2003.1.28)



일 최대순간 풍속(2003.1.28)

일자	지 점	울진	영덕	포항	영주	문경	영천	대구
1. 27	일 최대 풍속(m/s)	10.9	13.1	8.1	10.3	10.2	9.2	7.9
	일 최대 순간 풍속(m/s)	18.8	23.3	15.9	17.5	19.7	15.6	14.4
1. 28	일 최대 풍속(m/s)	13.1	14.8	8.0	11.0	8.2	9.4	8.5
	일 최대 순간 풍속(m/s)	23.2	24.2	17.1	19.0	14.6	18.2	16.2
1. 29	일 최대 풍속(m/s)	10.8	14.0	9.3	10.7	9.2	10.3	9.8
	일 최대 순간 풍속(m/s)	16.9	22.7	16.8	19.0	19.3	17.1	19.9

지점별 관측 자료(2003. 1. 27~1. 29)

○ 강풍, 풍랑 피해 관련 기사

강풍에 비상경보 오작동

비상경보시스템이 강풍 때문에 오작동해 경비업체 직원들이 자동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하는 소동이 잇따랐다.

초속 10m의 강풍이 불어닥친 포항에는 28일 밤과 29일 새벽 사이 20여건의 비상벨 오작동이 발생했다.

강풍으로 출입문과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자 이 부분에 설치된 비상경보시스템이 외부인 침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경비업체에 따르면 출입문이나 창문 등에 1~2cm 정도의 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비상경보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

경찰도 신고 접수할 바기는 마찬가지. 비상벨이 작동하면서 새마을금고와 금융방 등에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내용의 신고전화까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접수됐다.

포항 남부경찰서의 경우 평소에는 이런 신고전화까지 거의 없었으나 밤새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들이 현장확인에 나섰으나 모두 강풍에 의한 오작동으로 밝혀져 출동한 경찰들이 허탈해 하기도 했다.

경비업체 관계자는 "강풍에 의한 시스템 오작동으로 판명돼 다행이었지만 강풍이 계속되면 이런 소동을 더 겪어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포항 이상원기자 seagull@maeil.com

대구경북 강추위 계속

30일째 한풀 꺾일듯

기사 입력시간 : 2003-01-28 19:58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대구 경북지역은 기온이 더 떨어져 저 몸시 출갓으며 이 같은 추위는 30일까지 수그러질 전망이다. 대구기상대는 28일 대구 경북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져 봉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 안동 영하 14도, 상주 영하 11도, 포항 영하 9도 등으로, 28일보다 기온이 7~8도나 떨어졌으며 대구도 영하 9도를 기록,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

추운 날씨는 낮까지도 이어져 대구 영하 3도, 경북 영하 7~영하 2도의 분포로, 대구 경북 전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8일은 아침최저기온이 봉화 영하 10.1도를 비롯, 대구 영하 4.7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4~1.3도의 분포를 보여 낮 동안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을 유지했다. 이 날 대구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4.9m로,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보다 10~15도 가량 더 낮았다. 대구기상대 관계자는 "이 같은 날씨가 30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31일 낮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 처음으로 당일 최저기온보다 다음날 최저기온이 10도 이상의 차이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한파주의보를 27일 오후5시를 기해 전국에 걸쳐 발효했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 겨울 가뭄, 산불(2007. 1.)

2007년 1월은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대구·경북 월 강수량이 4.8mm로 1973년 이래 네번째로 적었음. 겨울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였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였음.

○ 대구·경북 1월 강수량 최저 순위

최저 순위	1	2	3	4	5
강수량(mm)	0.4(1976년)	1.1(1984년)	2.4(1985년)	4.8(2007년)	5.3(1977년)

○ 지점별 실효습도

지점	01월 12일	01월 13일	01월 14일	01월 15일	01월 16일	01월 17일	01월 18일	01월 19일	01월 20일
울진	28.7	27.1	26.7	30.0	36.3	35.6	38.8	35.9	40.9
대구	36.3	35.4	31.5	28.8	27.0	29.9	29.9	29.5	31.1
포항	34.4	32.9	29.3	25.0	23.6	26.6	28.2	27.5	32.7
영덕	35.3	32.1	28.0	24.0	22.5	25.3	30.5	28.9	33.3

○ 가뭄, 산불 피해 관련 기사



2007년 1월 24일 영남일보 기사 캡처. 제목: [포토] 겨울 가뭄 '속타는 農心'. 기사 내용은 겨울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간다는 내용과, 23일 오후 영천시 화북면 선천2리 농민들이 인근 만천천의 물을 끌어 포도밭에 대고 있다는 내용이다. 농민 성치경씨(60)는 "지난해는 동해(凍害)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가뭄으로 포도나무가 다 말라죽게 되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2007. 1. 24. 영남일보

건조한 날씨속 산불 잇따라

건조한 날씨 속 경북지역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새벽 3시 50분쯤 봉화군 법전면 척곡2리 미필재(66) 씨 집에서 불이 나 목조기와 주택 20여 평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천여만 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영주시방서는 나무보일러에서 나온 불씨가 인근 나무더미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8일 오후 3시 40분쯤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양지마을 뒷산에서 불이 나 임야 0.5ha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경찰, 공무원 등 200여 명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전날 밤 11시쯤에는 불이 난 양지마을로부터 4km가량 떨어진 자양면 용화리 가흥산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4ha를 태우고 이날 오전 진화됐다.

영천 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2007. 1. 9. 매일신문

경북 동해안 겨울가뭄 심각

기사입력 2007-01-15 오후 11:38



경북 동해안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겨울가뭄이 심각하다. 15일 오후 저수량이 50%를 밑돌고 있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지 상류부문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07. 1. 16. 경북도민일보